

2023년 06월 1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7편 6~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4(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8장 1~11절(구약p.786)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 그 길은 술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인류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식이 쌓여 갈수록 사람들은 지식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교만해집니다. 인류는 깊은 바다를 정복했고, 높은 산을 올랐으며, 그보다 더 높은 하늘과 하늘 밖의 우주로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정복했고,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게놈지도” 즉 사람의 유전자의 전체 염기 서열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실 인류는 깊은 바다를 정복했다고 하나 여전히 다다르지 못한 더 깊은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을 오르고, 우주로 나아간 인류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다다른 우주는 끝을 알 수 없는 전체

우주를 생각해 볼 때 미미한 발걸음입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질병을 정복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1. 과학을 위한 인간의 열정과 지혜는 끝임 없이 계속됩니다.

- 옅은 땅에서 다양한 보물들을 캐내는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열거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보물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보물을 캐내어 부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바로 땅속에 숨어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캐내는 그들의 원동력입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출하고 생산해 내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 생활의 여러 분야를 발달시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발달은 가속화되어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인간은 부를 누리기도 하지만 더욱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과학적 성과를 과신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다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2.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분명한 한계를 가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모든 기술이 물질세계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고,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들이 증명해 낼 수 있는 물질세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또한 인간이 발견한 모든 원리와 지식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로서 정해 놓으신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의 과학적 성과가 피조물의 전부가 된다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과학 발전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생명을 빼앗는 파괴적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들은 결국 순영향과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짐으로 누군가에게는 선하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참된 인생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

3. 매일 영적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성과는 크지만 물질세계에 제한되어 있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결과를 좋은 결과로 바꾸기 위해 힘쓰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인간은 물질적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의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존재인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 되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피조물을 관찰하고 연구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에 영적인 지혜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알아가며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인간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시키지만, 영적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를 전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더욱 매일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행하여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출 때 완성됩니다. 창조주를 모르면서 피조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참된 지혜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알아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매일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84(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폐 회 / 주기도문